

# 알코올, 노인 장기에 미치는 독성 강해 건강 해치는 주범



## 건강 바로 알기 노인 알코올 중독

### 김승전 광주다사랑병원 원장

우리가 흔히 알코올 중독이라 부르는 알코올 사용 장애(alcohol use disorder)는 음주를 조절하지 못하는 뇌의 병적상태를 말한다. 오랜 시간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면 뇌 안에 있는 여러 신경회로들의 연결고리가 서서히 달라진다. 중독 회로라고 부르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뇌 안에 만들어지면 음주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해도 술을 애타게 찾고,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으면 심한 불쾌감과 무기력을 느끼게 된다.

중독자는 음주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려 직장이나 가정에서 제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건강이 나빠지며, 음주로 인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겪게 된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년층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은 청장년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러 해에 걸친 역학조사에 따르면 노인 인구에서의 연간 음주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적극 치료해야 할 노인 알코올 사용장애=노인은 은퇴 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맡은 역할이 줄어들고 독립한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곤 한다. 때문에 음주로 인해 손상된 노인의 기능 수준을 주변에서

암·간경화 등 신체적 손상에 불안·우울 등 정신 질환 악영향 가족·사회·국가적 관심 필요 ... 적극적·전문적 치료 받아야

잘 알아차리지 못 할 수 있다. 알코올은 신체 기관과 전반적인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 결과 노인의 위생 불량, 자기관리의 실패, 불안, 우울, 감정기복, 기억력 저하, 혼돈, 무기력, 의욕 저하 등이 나타나지만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신체질환이 원인인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가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수치심을 갖고 있어 질환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소극적이거나 평가 자체를 거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노년기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알코올 사용장애는 빨리 진단하고 치료해야 한다. 노인은 알코올 분해효소 활성의 저하, 근육량과 체내 수분 감소 등으로 인해 같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를 하더라도 청장년에 비해 혈액 중 알코올 농도가 더 많이 증가한다. 높은 혈중 알코올농도로 인해 노인의 여러 장기들에서 알코올로 인한 독성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갖가지 암과 간경화 등 신체 상태의 악화가 빠르게 발생한다. 또한 알코올은 현재 복용 중인 내과적 약물에도 영향을 미쳐 약물효과가 크게 감소하기도 하며 꼭 필요한 투약과 치료를 만성음주 상태에서 잊거나 게을리하게 된다.

◇습관적 음주 치매의 원인=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음주는 노년기 우울증, 불안증, 의처증 등 여러 장애를 일으키거나 악

화시킨다. 노년에서 알코올 사용장애를 진단할 때 앞서 언급한 신체적 손상과 흔히 동반되는 정신과적 질환들에 대한 다면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년기에 기억력, 판단력 등 인지 기능이 감퇴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습관적인 음주는 인지 기능의 저하 속도를 매우 빠르게 해 조기치매나 중증치매의 원인이 된다. 예방이 가능한 치매가 방치되어 개입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 퇴행성 질환으로 인해 발생된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인한 혈관성치매의 경우 현재까지의 치료 수단으로는 질환의 경과를 바꿔 이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알코올로 인해 유발된 치매는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면 인지기능의 상당한 호전이 가능하다. 단주를 하고 균형있는 영양 섭취를 하는 것 만으로도 알코올성 치매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데, 계속 술에 노출되는 경우 영구적인 인지기능이 일어난다. 과음의 결과 뇌 위축, 영양결핍, 심혈관계질환 악화가 발생하고 퇴행성, 혈관성 치매 등 다양한 치매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면서 치매 예방, 진단,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치료와 검사 비용 부담 감면,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노인인구에서 치매를 발견하고 관련



광주다사랑병원 김승전 원장이 찾은 음주로 기억 감퇴와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80대 노인을 상담하고 있다. <광주다사랑병원 제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노년기 문제 음주에 대한 선별 검사와 전문 서비스로의 연결을 포함하여 치료가 가능한 치매인 알코올성 치매에 대한 개입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의지만으로 극복 어렵고, 전문 치료 받아야=노년기에 새로 발생하는 알코올 사용장애는 고령에서 겪는 다양한 상상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강악화, 노쇠, 퇴직, 자녀의 독립, 사별, 가정내 영향력의 변화 등 여러 상실에 대한 건강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인은 우울과 불안

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고통을 술 기운으로 잊고 이겨내려는 시도를 반복하다가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게 된다. 회복을 위해서는 해독 등 내과적 처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심리적 상황을 이해하고 정신의학적인 개입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알코올 전문병원에서의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 지역사회와 단주 모임에서의 자기 표현, 지지적 관계의 경험이 문제음주의 원인이 되었던 심리적 곤란을 알아차리고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알코올 중독은 뇌의 변화로 음주조절능력을 잃어 본인과 가족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파괴적인 질환이다. 날로 증가하는 노년기 알코올 사용장애를 제 때 발견하고 치료하려면 가족, 사회, 국가의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알코올 사용장애는 결코 불치의 병이 아니다. 개인의 의지나 마음만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전문적인 중독 치료를 한 뒤, 단주자 모임 등 정신사회적 치료를 받는다면 단주와 회복은 가능하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대병원 융합의료기기지원센터, 3D프린터용 생체 의료소재 심포지엄

전남대병원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센터장 윤택림 정형외과 교수)가 최근 미래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인 3D프린터용 생체 의료소재 최신 동향 심포지엄을 전남대 의과대학 덕재홀에서 개최했다. <사진>

이번 심포지엄은 전남대병원 임상들과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를 주축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의 3D프린팅 기술연구 성과와 전략 공유로 산학연병 공동연구를 통한 3D 프린팅과 생체의료소재의 실질적인 융합연구 및 임상활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3D 프린팅의 응용 ▲생체의료소재 관련 센터 소개 ▲생체 의료소재 응용 I ▲생체의료소재 응용 II 등 4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윤택림 센터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국



내 의료기관이 미래 의료기술 연구와 기술 사업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맡는 혁신 거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3D 프린팅 의료기술 선도와 산학연병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교류의 장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병원 융합의료기기산업지

원센터는 지난 8월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인 3D 프린팅을 의료기술에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각 의료분야의 활용 사례와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 제품 개발 동향을 논의한 '3D 프린팅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제품기술 동향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화순전남대병원, 폐광산지역 주민 건강 돌본다

### 고흥 등 주민 117명 관리

화순전남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과장 문재동)는 호남지역 폐광산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와 사후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 고흥·순천, 전북 무주·진안 소재의 4개 마을 주민 117명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에 이어 의학적 관리조치도 병행했다. 호남권 폐광산지역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와 사후관리는 지난 2007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사진>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자며, 교통시설이 열악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전국에는 일제강점기 때 난개발된 수백 개의 광산이 있고, 현재 대부분 폐광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비소·카드뮴·납 등 유해 중금속이 누출돼 물·토양·



농작물을 오염시키고,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청연중앙연구소 임정태 박사팀

### 'Best Poster Award' 수상



청연중앙연구소는 최근 대만 타이베이 의과대학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코크란 연합 심포지엄(EACA)에서 임정태(사진) 박사 연구팀이 '외상성

뇌손상에 대한 한약치료의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주제로 발표한 Best Poster Award를 수상했다. 임정태 박사 연구팀은 2019년 해당 연구의 프로토콜 논문을 국제학술지인 'Medicine'에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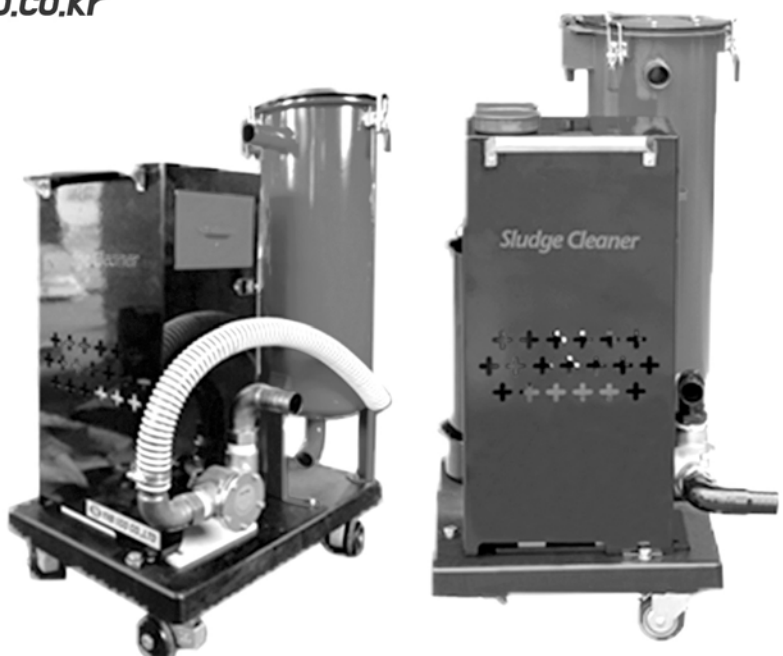
임정태 박사는 "한의학 분야 포스터가 많지 않았음에도 수상을 함으로써 한약치료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YHB (주) YHB ECO / 주식회사 YHB**

**'32년 집진기, 슬러지크리너 전문 제조업체'**

[www.yhbeco.co.kr](http://www.yhbeco.co.kr)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원가절감**

**가공품질향상**

**직업병예방**

**산업·공작기계 연/절삭유 탱크**  
**청소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

**\* 머시닝센터, CNC선반, 기어가공기, 연삭기 등 수용성 비수용성 절삭유 모두 가능 \***

**✂ 절삭유 교체 ✂ 미세 칩 제거**  
**✂ 연/절삭유 부패방지 ✂ 슬러지 악취 제거**

**제조판매 / 장비렌탈 / 청소대행서비스**

광주공장영업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 TEL : (062) 953 - 2995  
▶ H·P: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501호

▶ TEL : (02) 2029 - 6400 ~ 3